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1, 2차 침략시기와 그 전 후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사명을 다한 제사장 가문출신의 선지자이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애가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수없는 애통함과 눈물을 보였다(예:렘9:1,4:17, 애3:49,50).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였고 개인적인 영달에 빠져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설마 임하겠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정녕 그랬다면 그것은 그들의 오만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진정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외면했고 오히려 가짜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만족하며 세상살이에 빠져 타락하였다.

그들은 마치 불치병에 걸려 있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의 병자가 그 병을 인정치 않고 의사나 약을 거부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겨대는 것과도 같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현실에 타성이 생겨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어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습은 달라도 비슷한 내용을 띠고 있는 오늘날에 비교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젖어 사이비 신앙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은 올바르게 서 있다고 하면서 삶은 세속적이고, 주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자기실현에 충실하며, 현세의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현대인의 신앙은 과연 그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고로 깨어나야만 한다. 영적 각성이 요구된다. 예레미야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략케 하였는데 597BC 침략시 무조건 항복케 하여 멸망을 면하는 대신 지도자들이 볼모로 잡혀갔고 궁정집기들을 모두 빼앗아갔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의 회귀보다는 이상숭배,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부패가 더 만연해지고(렘5:1-9,23:10-14)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므로 586BC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케 하고 성벽을 헐고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므로 유다왕국은 끝내 무너졌다(렘25:9,39:1-9).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되었을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으며 생명도 없는 이방신을 이상숭배하면서 세상을 좋아해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도 정도를 벗어나 혼돈 속에 있다. 이런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현실의 안주와 만족, 현세적인 믿음과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에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참 구원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지금, 하나님나라(현재성)에 거하여 참된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리 될 때이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들림(휴거)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써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유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나라(미래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사탄의 세계이다. 잠시 동안으로 불로 없어질 세상이다. 무엇 때문에 미련을 가지려고 하는가? 죄와 이상화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

당시 이스라엘을 징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버리시지는 않으셨다. 70년간의 포로생활을 통하여 회개시키신 후 구원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회복의 연장선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있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무너트렸던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열방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육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최후의 불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렘25:1-28). 끝은 심판이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상숭배와 세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갈망하는 애틍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었다면 우리에게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 되어야 하는 가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심판에 직면할 자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 이어야 하며, 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서도 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직도 세상 반, 믿음 반에 있는 자들을 깨우는 외침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 각성하여 주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으로 들림(부활과 휴거)에 대한 확신을 다짐할 수 있는 고뇌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치는 메시지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하언) 선교사입니다. 이곳 필리핀은 1월 2월에 가장 시원하고 건기로 접어드는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더워졌다가 7월부터는 우기가 시작 됩니다.

-앙헬레스 산토리노 은혜교회
지난 12월에 산토리노 은혜교회를 완공하여서 주일 오후 5시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사창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뿌락 아이따 은혜교회
2년 전 완공한 뿌락아이따 은혜교회에서는 산속 원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하여서 특별히 쌀과 설탕 등을 나누는 피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지는 산속이 제법 추워서 많은 원주민들이 산 아래로 임시로 이주하여 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마발랏캣 아프로볼라 은혜교회
3년 전 필리핀으로 파송 받으며 매년 한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받은 은혜와 축복은 또 다른 무엇인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 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 인 아프로볼라 은혜교회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이전 보다 더욱 바쁘게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정부 땅에 제법 큰 규모의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저 예산으로 지어지는 작은 교회이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 보다 문턱이 낮은 작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건축 중인 아프로볼라 은혜교회의 완공
 2. 앙헬레스 산토리노 은혜교회 영적 부흥
 3. 뿌락아이따 은혜교회의 산속 원주민의 건강과 신앙생활
 4. 모든 사역에 채워주심을 은혜
 5. 가족의 건강과 사랑
- 필리핀 김인수 황소정-

반 개종법이 많은 주에서 통과되었고

인도 삶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곳은 얼마 남지 않은 홀리 축제를 기다리며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유채밭은 유채씨를 받았고 지금은 밀이 누렇게 익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에게 올 해 홀리 축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 개종법이 많은 주에서 통과되었고 이 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지를 여느 때보다 더 면밀히 살피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반 개종법과 까다로운 비자정책으로 선교사들이 인도에 장기 거주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 나갈 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신학생들이 사진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 볼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카메라 작동법도 모르고 처음 만져 본 학생도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로 사진을 곧 잘 찍습니다. 한 겨울을 지나 봄의 끝 자락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홀리 축제가 지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학생들도 한 학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갑니다.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이 커져 갑니다.

- <기도제목>
1. 주님이 주신 영과 육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운동과 말씀과 기도)
 2. 1월에 신청한 외국인 거주 허가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마음이 바뀌어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6월초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고 돕는 자들이 일어나 서류를 잘 갖추고 비자 연장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5. 신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라오스 제00, 박00 선교사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요청전에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눠야 저희 상황을 좀더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 같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는 지난 2020년 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집세와 가게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돌아 다닐 때마다 집과 사역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두 녀석을 집에 놓고 사역장에 나가 2시간 3시간씩 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매번 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건물을 기쁘게 찾았다고 해도 렌트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포기 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라오스를 빠져나가고 곳곳마다 비어있는 건물이나 올 때쯤 집 주인도 저희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게 되어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죽(비즈니스)사역장이기도 하지만 이곳을 헤세드(은혜)센터로 명명했고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헤세드센터로 사업자명을 받은 이유는 센터 개념으로 이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업훈련, 제자양육, 한식교육등등 예전에 후원자분이 사업자 변경을 위한 물질을 보내주셨고, 폰시누안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무원을 소개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자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준비된 금액 안에서 받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8월에 2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말부터 1층과 바깥 외부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말에 마무리가 되어 1월 초 헤세드 센터(본죽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시요, 환난 때의 요새 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 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시편9장9,10절)

1. 가족 이야기

코로나가 시작 되고 아이들과 매일매일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 하며 가정 안에 일어나는 사역 적인 부분들 까지 같이 나누며, 집안의 대소사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모든 일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와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습관들이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땐.. 어른들처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묻기도 해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못을 회개하며 마음속 깊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를 할 때면 기도하는 중에도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어져 가는 게 얼마나 중요 한지 저희 부부의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되며 사역의 일 순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9월달 부터 레미야(만8세8개월), 로이(5세9개월)는 학교로 돌아가 3학년,1학년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힘들게 카페와 주거지를 함께 사용할 곳으로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사 전 제일 큰 공사는 주거 공간에 부엌이 없어 2층 큰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주방으로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와 낡은 곳을 수리하고 어둡고 컴컴한 조명들을 교체 했습니다.

2-1. HESSED(은혜) CENTER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 전서 6장 18,19)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 이전하는 HESSED CENTER(헤세드센터)의 미션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카페 사역을 통해 선한 것을 행하게 하고 카페 사역의 부흥을 통해 나누고 흘려 보낼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앞에 세워 직원들

과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길 소망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더 귀하게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HESSED CENTER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더 넓혀져 가게 하고, staff들과 저희가 더 성숙한 자들로서 갈 수 있도록. staff 2명이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12월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재정들이 잘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폰시누안 초등학교에 축구부를 만들게 됩니다. 손 모아주세요.

4 나쿱교회(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안에 부흥, 양계를 통해 어려운 재정이 잘채워지도록) 감사제목 : 오래된 봉고차이지만 한인교회에서 기증받아 나쿱교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5 방과후 센터를 새로운 곳에 오픈 하기 준비중입니다. (3월초 기준) 이 방과후 교실은 라오스 대학생 발런티어를 훈련하기 위한 시범적 교실입니다.

6 통망교회 (소수민족인 몽족가정교회에서 시작되어 성도들이 점점 많아 지게되어 건물이 필요합니다. 손 모아주세요)

7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의 위험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역의 중간중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레미야, 로이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정00/화0 선교사 문안인사 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이기자"에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자"로 표어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질병에 대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꽤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학교와 교회 사역지에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와중에서 작년 8월부터 건축에 들어간 까수르 그레이스처치가, 완공되어 약500여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이 곳에서 그 동안 장소가 협소해서 분산해서 이곳, 저 곳에서 드리던 예배를 별 무리 없이 주일학교와 대 예배, 사역자 헌신예배까지 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 많은 정부시책과 명령에 따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듯이 하던 학교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미라쿨스쿨과 독수리학교를 비롯하여,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굿모닝스쿨, 펜타코스트스쿨, 뉴라이프스쿨, 노벨스쿨, 마이클스쿨, 필립스쿨, 다임스쿨, PGA스쿨 등, 그 외 많은 크리스찬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예전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모집되고 새로운 책.결상지원, 시설지원과 무엇보다 정기적인 영성훈련과 기도회를 통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10여년전에는 온 몸에 흙을 묻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벌판 흙 바닷을 놀이터와 일터로 삼아, 오로지 벽돌을 찍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이들이, 이제는 여전히 부모를 도와 일하면서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기술을 배워, 자비량으로 선교사와 복음전도자로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매일 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주일학교 대예배 헌신예배도 참석하고, 주기적으로 떠나는 전국 사역자 전도여행에도 따라가 훈련을 받습니다.

-개종하여 사역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훈련
-교회사역을 하고 있으나 전혀 타문화권 선교의 마인드가 없는 목회자, 복음전도자 훈련
개종하여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은 뜨겁고 열정은 있으나, 어떻게 복음사역을 해야할 지 준비가 부족한 사역자들을, 효과적으로 영적.물적으로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사역을 지속하게 하는가를 연구하고 발표하며, 그 동안의 필드 경험담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제목>

1. 다시 재 개학한 학교들이 학생수가 많이 모집되고, 모집된 학생들이 믿음과 실력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2. 4월에 계획중인 전도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참석인원, 시설, 강사)
3. 비즈니스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동역하는 스 과 선교사부부를 위해서
4. 헌당예배를 드린... 까수르그레이스처치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타 사역 센터와 지 교회에 사역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5. 동역하는 많은 교회 학교 필드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열심을 더 내어서 속히 외부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선교를 할 수 있게